



유학대학 여러분,

반갑습니다.

이제 8년간(2015~2022) 유학대학장의 소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.
학장을 맡으면서 유학대학의 기초를 다지고 미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.

또 여러분을 한 자리에 모으는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.
그 시작이 유학대학 70주년 행사이고 마지막이 유학대학 한마당이었습니다.

그 중에도

해외연수, 해외 대학과 복수 학위를 실시하여 국제적 안목을 기르고
순성놀이를 실시하여 구성원의 화합을 이루고
국내외 답사를 실시하여 학업과 현장의 연결을 찾고
유대(紐帶)지를 발간하여 유학대학이 한 일을 기록하여 역사를 정리하고
장학제도를 갖추어서 학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틀을 갖추고자 했습니다.

돌아보면 순간이지만

하나의 과정을 지날 때마다 많은 분을 만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.
여러분의 도움과 열정이 아니었다면 결국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.
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통계와 자료 속의 사람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생각과 희망을 나누고 열의와 공감을 느꼈습니다.

이는 유학대학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원동력입니다.
원동력이 추동력이 되면 유학대학의 배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.

저의 임기는 끝나지만

유학대학은 또 김동민 학장님과 함께 앞으로 뻗어나가리라 믿습니다.

그간 소중한 인연과 사연에 감사드리고
모든 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30일

신정근 절하떠 올립니다.